

# 가족구조와 지역사회 자본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사회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 유(서울대 석사과정)

본 연구는 지역사회 자본 변수가 가족구조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우울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가족구조는 크게 양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사회 자본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이 지각하고 있는 지역사회 지지와 본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지역사회 지지는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과 맺고 있는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 존중, 인정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적 지원을 의미하며, 지역사회 참여는 이웃과 지역사회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일이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NYPI횡단조사 [201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방안 연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은 당시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총 2,943명(남자: 1,520명, 여자: 1,423명)이 응답한 내용을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가족구조에 따라 아동의 우울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차이가 있다면 가족구조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우울간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자본 변수는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별, 학업 성적, 가정의 경제수준을 통제된 후에도 가족구조에 따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우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 가정의 아동에 비하여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아동의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 자본 변수를 포함시킨 후에 지역사회 지지와 지역사회 참여 모두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역사회 지지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이 지역사회 지지를 적게 받았다고 지각할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 지지체가 각 구성원 간에 맺고 있는 관계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화할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참여 변수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이 지역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이들의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체들이 더 활성화된 지역사회활동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자본 변수 중 지역사회 지지가 가족구조에 따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이 지역사회 지지가 충분하다고 느끼면 양부모가정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이 지역사회 지지가 충분하다고 지각하는 것보다 우울을 더 감소시키는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통해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우울은 지역사회 자본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아동의 우울을 낮추기 위해 지역사회 자본을 활용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